

KNTA News

국민 보건향상을 위한 약속, '고객헌장' 제정

대한결핵협회(회장 김성규)는 2007년 11월 6일 제54회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고객헌장]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는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결핵퇴치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협회는 고객헌장과 더불어 올바른 서비스 개발과 실천을 위해 '서비스이행표준'과 '환자권리장전'을 만들어 실행의 지표로 삼고 국민 건강 증진에 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TB PACS 개발완료 시연 회의



보건복지부와 결핵연구원이 시행중인 '국가결핵 관리 영상정보시스템(TB PACS)' 2차 사업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13일(화) 결핵연구원 강당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회의가 열렸다. PACS란 의료장비로 촬영한 디지털 영상화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진료실, 병동 등 어디서든 환자 임상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획기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결핵환자 발견에 있어 신속한 환자발견 및 현재 판독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대한결핵협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PACS 구축 보건소를 연계하여 결핵퇴치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5회 '폐의 날' 후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지난 11월 16일(금) 중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폐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COPD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폐질환의 실상을 알렸다. COPD는 기도가 서서히 막혀 호흡을 하기 힘들어지는 질환으로 45세 이상의 성인남성 25.8%, 애연가 4명 중 1명 꼴로 이 병을 앓고 있지만 이중 8%만이 병원을 찾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당신의 호흡나이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무료 폐기능 검사 및 상담, COPD 강좌를 실시하여 COPD에 대해 적극 알리고, 한국인의 주요 폐질환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등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및 일반의 큰 호응을 얻었다.

폐의 날 행사는 서울 11월 한 달 동안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전, 대구, 춘천, 전주,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차례로 실시되어 전국민이 폐기능 검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